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COMMUNITY PAIN MEDICINE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파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 (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ADSG 치과 50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1-3909 손영준 아브라함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종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 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회사설립 사업면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Ave (718) 295-3252

제1700호

2012, 2, 5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마르코 1, 29-39)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ax : (718) 405-0053



연중 제5주일

ㄹ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시편 95(94),6-7)

<대영광송>

ㄹ 제1독서

(나는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욥기의 말씀입니다.

(7,1-4.6-7)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2 그들을 애타게 바라는 중, 샅을 고대하는 품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3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4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 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5 나의 나날은 베틀의 복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7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47(146),1-2.3-4.5-6(●3))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1.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2.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3.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ㄹ 제2독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9,16-19.22-23)

형제 여러분, 16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17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18 그렇다면 내가 받는 샷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19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2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23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태 8,17)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ㄹ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9)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29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3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39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 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2/ 5 8시	김 미수	김 부균	방 경숙	김 철중
11시	김 철	신 대철	신 춘화	김 여경
2/12 8시	이 상식	윤 광석	윤 기애	이 영자
11시	이 윤형	한 광희	박 은영	이 인숙

복 사 : 김 성준 & 조 중훈 김 찬 & 엄 국진

봉헌자 : 정순조&조현구 가족 다음주 : 정철수&주성문 가족

헌금봉사 : 은총의 중계자 Pr 다음주 : 신비로운 장미 Pr

운전봉사 : 이 준섭 다음주 : 김 민환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설 잔치에 도움 주신 분(감사미사) : 대건회 일동봉헌

전 구역장(감사미사) : 동부 웨체스터 구역일동 봉헌

윤포카스[경숙](생미사) : 사랑하올 어머니 Pr 봉헌

최안나[광자](생미사) : 김안나 봉헌

아버님(연미사) : 최테레사[영애] 봉헌

김루시아[정자](연미사) : 제대회 일동, 김요한[동현]가족봉헌

차안드레아[상재](연미사) : 차안나[금순] 가족봉헌

권마리아[채순](연미사) : 조요한[용국] 가족봉헌

박루가[덕수](연미사) : 조요한[용국] 가족봉헌

최율리에따[정자](연미사) : 김안나 봉헌

김즈가리아[종성](연미사) : 윤크리스티나[정희] 봉헌

이엘리자벳[영자](연미사) : 윤크리스티나[정희] 봉헌

성가

입당 : 빛의 하느님 (성가 3)

봉헌 : 찬미의 송가 (성가 431)

성체 : 주님의 작은 그릇 (성가 180)

파견 : 주 예수 따르기로 (성가 29)



교회 소식

(1) 주님 봉헌 축일

오늘(주일) 초 축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준비해 주시고 미사 전에 제대 앞에 봉헌하여 축성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2) 혼배 갱신식

오늘(주일) 11시미사중에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신 분, 결혼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되시는 분 그 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반지)

(3)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 재의 수요일

22일(수)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지난해 가져가셨던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성당입구에 마련된 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5) 중, 고등부 스키클럽 소식

중, 고등부 신앙캠프(스키클럽)가 19일(주일)-20일(월) 이틀간 있습니다. 신청은 주일학교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모회 어머니피정

어머니피정이 26일(주일) 매리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성모회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8) 2차 헌금 (Peter's Pence)

교구 연중계획에 따라 오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12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 **서부웨체스터 구역회**가 다음주12일(주일) 최일훈(이니시오) 구역장님 (646) 420-5070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
- **신자주소록**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바오로말 도서선교**
날자: 2월 12일 미사 전후
내용: 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말 수녀들이 신앙서적, CD,DVD 등을 전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 하십시오
- * **이번달(2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다음달(3월)은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301.00

교무금 : \$1,705.00

교육헌금 : \$4,318.49

유영애(완) 심영숙(1-3) 김현정(1-3) 이종언(2)

유근천(1) 정순조(1-3) 김원식(1) 김문자(2)

신흥원(2) 김관희(2) 한성천(1) 성기용(1)

추성태(1-2) 이현규(1-3) 이신우(1-4)

교구청 기금 \$1,345.00 누계 : \$2,730.00

유영애 심영숙 김현정 유근천 성기용

정순조 신대철 김원식 신흥원 이신우

김관희 한성천 박은영 이갑조 추성태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봉헌할 것입니까?>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봉헌'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말, 바친다는 말, 내어놓는다는 말이겠지요.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내 안에 간혀있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보다 큰 흐름, 보다 큰 물결, 보다 큰 선, 보다 큰 가치관이신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 내 전존재를 내어놓는 행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헌한다'고 할 때 주로 뭔가 좋은 것, 고가의 것,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봉헌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삶 전체에 대한 봉헌, 아무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바치는 봉헌도 좋은 모습의 봉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일상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기도 싫은 끔찍했던 지난 세월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용서하기 힘든 그 누군가도 '그냥' 하느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내 한계, 부끄러움, 죄...이 모든 것 역시 하느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매일의 삶 전체가 봉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십자가, 좌절과 방황, 한계와 모순, 회한과 눈물,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봉헌의 대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빛나는 외모, 그의 재산, 그의 성공, 그의 젊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족함, 그의 실패, 그의 한계, 그의 쇠락, 그의 죽음조차도 사랑해야, 그것이 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장점,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 우리의 성공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한 부분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째로 사랑하십니다.

봉헌한다는 말, 내어맡긴다는 말에는 조금은 수동적인 분위기, 소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봉헌한다는 말, 바친다는 말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보다 큰 흐름에 내어맡김으로 인해 얻는 자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 않고, 크신 하느님께서 의지한다는 결단이 봉헌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크게 내어맡김으로 인해 더 크게 성장하고, 완전히 바침으로 인해 더 큰 해방을 얻는 그런 봉헌축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봉헌하고 온전히 빈손으로, 완벽히 텅 빈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대자유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텅 빈 충만, 완벽한 평화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 살레시오회 수도원 수련원장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